

우리나라 물류현황과 한국물류협회의 역할

“
여러조건을
갖추고
관련업계의
이윤추구에
앞장
”

물류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간단히 논하기는 어려우나 크게 보아 두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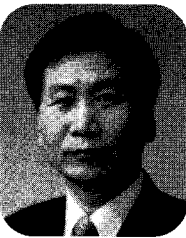
첫째는 정부차원의 물류로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에 관련된 SOC분야이다. 현재 정부는 물류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물류정보화를 추진하는 등 필수요건들을 착실히 수행하고는 있으나 성장발전의 중추인 물류정보망의 구축은 아직도 요망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정부 및 업계가 같이 인식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로 그 격차를 줄이는 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기업입장의 물류로서 제조업체·유통업체·물류업체 등은 회사별로 물류조직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자기물류 체계로 운영하고 있어 물류아웃소싱의 전환속도가 매우 늦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물류서비스(3자물류) 업체는 하주기업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물류혁신을 위한 물류진단·기획과 물류컨설팅 등의 조건을 구비하고 관련업체의 이윤추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물류업계는 물동량의 변동폭이 크고, 소비자의 욕구증대·제품의 수명주기 단축·생산의 세계화·물류비용의 중요성 부각과 다품종 소량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물류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리드타임의 단축 등을 위하여는 3자물류의 도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3자물류의 도입은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물류비절감과 물



서 병 문 / (사)한국물류협회 회장

- 1984년 9월 한국물류연구원 설립, 원장 취임
- 1985년 10월 한국파렛트풀(주) 설립, 대표이사 취임(현)
- 1993년 8월 공업진흥청 KS 물류규격 심의위원
- 1995년 5월 ISO TC51(파렛트분과위원회) 한국대표
- 1995년 5월 건설교통부 물류표준화 추진위원
- 1996년 11월 한국컨테이너풀(주) 설립, 대표이사 취임(현)
- 1997년 5월 건설교통부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위원
- 2001년 8월 아시아태평양물류연맹 부회장선임(현)

류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자원을 집중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물류공동화 작업을 통한 물류아웃소싱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리고, 물동량이 많은 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물류표준화를 우선하여 실시하고, 물류공동화를 이행하는 것이 21세기 경쟁시대에 살아남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순서는 먼저 생활용품 등 포장이 필요한 분야를 먼저 진행한 후에 냉장·냉장식품 등을 묶을 수 있는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물류공동화의 추진에 있어서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물류분야를 묶어 조작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물류선진화를 위해서는 물류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필요한 데 대형화를 시도하는 목적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화는 화물의 특성에 따른 물동량에 대한 공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물류업체는 유사품목에 대한 대형화·전문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다가오는 경쟁심화의 물류환경과 철저한 시장원리하에서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물류산업과 경제 선진국으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협회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물류업계를 대표하는 민간단체로서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의 선진화에 그 역할을 다 할 각오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물류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국내의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국내와 해외 물류체계를 연계공동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15일 개최한 '물류산업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제1차 물류정책토론회에 이어 다가오는 6월과 9월에 2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추가로 개최, 우리의 물류산업의 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장·단기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물류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토론회로 도출코자 한다.

그리고 물류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혁신기법 등을 소개하는 물류자동화·정보화·표준화·공동화·시스템화의 5개 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산업

**3자물류
도입과
물류기업의
핵심역량강화로
물류 아웃소싱
조성 필수**

**경쟁 심화의
물류환경
철저한
시장관리하
필요**

“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인식의
 저변확대에
 노력**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류전문교육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류실무자를 계속하여 배출해 나아갈 것이다.

이에 금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제10회 한국물류혁신대회의 컨퍼런스'에서는 물류혁신의 이론과 선진기법, 우수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물류지식의 확산과 인식제고, 물류혁신의 저변확대 등에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업체와 개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정부의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체·유통업체·물류업체·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으로써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우리 협회는 금년도 운영목표를 '한국경제계의 물류분야 혁신의 관제탑으로 만들기 위한 도입기'로 정하고, Client Service 개념을 확립하여 Business Profit 창출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구축'으로 정했다.

이의 수행을 위하여 협회에 물류자문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에 있는 물류관련 업계와도 교류를 강화해 나아가며, 물류혁신 방안의 제시와 물류비 산정 등의 컨설팅 사업도 착실히 준비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물류관련 단체와의 관계개선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물류연맹(APLF), 일본물류시스템협회(JILS), 미국물류엔지니어링협회(SOLE), 중국물류협회(CFLP)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물류세계화의 시류에 맞춰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인식의 저변확대에 가일층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현재 우리의 물류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관련업체들의 희망과는 달리 아직까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꺾이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분류포맷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예로 지금까지 종합물류회사에 대한 정확한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음은 물론 3자물류업인 종합물류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류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신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 등을 충분히 활용한 우리나라의 물류선진국화는 앞당겨 질 것을 확신한다. ☞